

85년도 손해보험 정책방향



白源九
(재무부증권보험국장)

지난해 우리 경제는 경기부진, 선진국의 수입규제 강화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속에서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건실한 성장과 물가안정을 이룩함으로써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다져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손해보험산업은 15%내외의 성장을 시현할 것으로 보여 물량면에서는 비교적 높은 성장이 전망되지만 손해율의 상승으로 인한 지급보험금의 증가, 과당경쟁으로 인한 사업비 지출의 증가 해외재보험수지의 만성적 적자등으로 인하여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서는 손해보험산업의 현황 및 당면과제와 1985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정책방향에 대하여 살펴 보고자 한다.

우리 손해보험산업은 1960년부터 1980년까지 20년동안 연평균 41.4%에 달하는 획기적인 성장을 이룩하였는데 이러한 고도성장은 보험사업자들의 적극적인 노력도 있었지만 경제개발계획의 추진에 따른 경제규

모의 양적확대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와같은 경영외적요인에 의한 양적 성장은 보험사업자들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개발의욕을 둔화시켰고 자율경쟁체제로의 전환에 따른 적응능력의 배양을 소홀히 함으로써 보험산업의 근대화를 저해하고 경영체질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이제 우리 보험산업은 규모면에서 세계 14위를 차지할 만큼 성장하였지만 질적인 면에서는 대형대리점의 기능을 크게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 만큼 많은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경쟁요소가 많이 남아 있는 우리 보험산업분야에 있어서는 각종 비능률을 제거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모집확대 일변도의 경영방식, 거의 무시되고 있는 위험관리기능, 매년 수백억원의 만성적인 해외재보험수지적자가 우리 손해보험산업의

질적으로 얼마나 취약 한가를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손해보험은 결국 해의를 포함한 재보험 거래를 통하여 위험분산을 택하기 때문에 경쟁촉진을 통하여 보험경영 기술을 향상시키지 못하는 한 보험산업의 발전은 기대될 수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손해보험산업의 질적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는,

- 첫째, 자율경쟁 체제를 도입하여 보험사업자의 경영체질을 개선하고,
- 둘째, 보험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증진시키며,
- 셋째, 위험관리기능을 강화하여 손해율을 경감하고,
- 넷째, 보험 계약자의 수요에 부응하는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보험 모집제도를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당면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85년도에 정부와 손해보험업계는 다음과 같은 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가. 보험경영의 개선

우선 보험산업에 있어서 경쟁제한적인 각종 제도를 개선하여 자율경쟁의 폭을 확대하고 능률의 극대화를 위한 노력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한국보험공사의 종합적인 경영분석 및 지도 기능을 강화하여 보험사업자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나. 보험가입자의 편익증진

보험은 누구보다도 보험가입자를 위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따라서 보험상품은 보험가입자의 기호에 맞게 개발하여 판매하여야 하며 보험용어와 약관을 쉽게 만들어 보험가입자에게 불리한 점이 없도록 하고 보험사고 발생시 피해조사와 보험금 지급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보험료의 납입시기와 방법도 보험가입자에게 불편하지 않도록 개선되어야 하며 그 일환으로 보험료 수납의 은행GIRO제도 활용도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다. 위험관리 기능의 강화

보험산업이 내실있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위험관리기

능의 강화가 매우 중요하다.

즉 전문기술에 의하여 보험대상물에 대한 위험의 정도와 취약부분을 조사하여 그 위험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부과함과 아울러 양질의 보험물건에 대해서는 자기보유를 확대하고 취약부분에 대하여는 서비스 기능을 통하여 보험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전반적인 방재활동도 매우 중요하다.


한국화재보험협회가 맡고 있는 방재기능은 계속 확대 발전되어야 하며, 자동차보험과 같이 규모가 크고 사고율이 높은 보험에 대해서는 전문 기능에 의한 사고 원인 분석과 방지대책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손해보험업무의 수지개선은 물론 국민 생활 안정에도 기여해야 할 것이다.

라. 보험통계의 개선

보험의 운용에 있어서는 통계가 그 기초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아직까지 통계업계가 소홀히 취급되고 있다.

1983년에 손해보험 요율산정회가 설립되어 손해보험요율의 검증과 합리적인 조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역시 기초통계가 정립되지 아니하고는 합리적인 보험요율을 산정할 수 없다.

따라서 보험의 질적 발전을 위해서는 보험통계가 정비 발전되어야 할 것이며 이와 더불어 업무의 전산화도 꾸준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서로다진 화재예방
서로웃는 복된생활